

호스피스 대상자의 초기 사정 - 목회자의 관점에서 -

윤 찬 우*

1 시작하는 말 임박한 죽음에 대한 불안

현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한 사회가 되었다 이것은 의학 또는 그 주변 학문들의 발달도 포함되며, 인간의 질병의 정복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과학의 혁신적이고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은 늘 한계상황이다 죽음에서 해방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초극할 수 있는 대책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의식, 무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죽음의 거대한 그림자는 항상 인간 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공할 만한 적(Enemy)으로 존재한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죽음을 '형이상학적 충격(Metaphysical Shock)'이라고 정의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인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의 상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간의 존재는 죽음이라는 비존재의 위협을 당하고 무의미로 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구하고 그 의미를 만족케 하는데 대하여 궁극적 관심을 가진다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심이고 이와 같이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주어진 종교적 호칭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목회

자의 전인적 돌봄 행위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막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선 그들에게 임박한 죽음을 통한 비존재화 즉 실존적 절망상태를 극복하게 하고, 남은 삶의 기간 동안 궁극적 관심을 회복하며, 죽음 불안의 감소효과 등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죽음 불안의 원인

1) 죄책감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모든 목회적 상담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죽음의 불안에 있어서도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2) 미지성 (신비성) 죽음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미지성과 추상성 인해서 더욱 두려운 것이다

3) 단절성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와 소유 등 그동안 자신을 유지해 오던 모든 대상과의 단절을 포함한다

4) 수동적 접근성 죽음은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라, 보다 큰 세력을 지닌 타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건이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원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희망하지 않지만 그것은 점점 다가온다

*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 원목

3 죽음 불안의 유형 - 헤넬로어 와스(Hannelore Wass)

- 1) 죽어가는 불안 생물학적, 사회적 고통의 과정, 역할 상실과 수치, 고독 등을 포함 한다
- 2) 죽음의 불안 자기 존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극도의 자기 상실에서 오는 불안을 의미한다
- 3) 죽음의 결과의 불안 죽음 후에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지옥에 대한 공포와 처벌에 대한 불안의 상태를 말한다
- 4)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과 분리됨으로써 느끼는 슬픔과 고독을 포함 하여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감정을 나타낸다
- 5) 의존성의 불안 그 동안 의존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안이다

4 초기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적특성

호스피스에 대한 불유쾌한 접근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성이 서서히 체감화되는 시기이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다양, 혼재하고 두려움, 분노, 쇼크, 불신, 부정, 죄책감, 변덕, 타협, 절망 등의 심리적 특성이 변화무쌍하게 발생된다 그리고 신앙적 갈등과 분노, 우울의 정도가 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원망, 죄책감이 심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갈등을 느낄 힘조차 없이 무감각적인 포기과 위축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극히 일시적이지만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신앙에 관심을 보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하나님과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과 대인 관계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치료법의 영적,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는 시기이다

5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돌보며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다 영성(Spirituality)이란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의 양상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영성은 돌봄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

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해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데도 호스피스 대상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가 만나는 한계다 이 한계는 왜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한다 목회자는 때때로 호스피스 대상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분노, 심지어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체험한다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부재, 은총의 부재를 체험한다 은총의 부재는 자칫하면 목회자로 하여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연의 한계를 수용하고 뛰어넘어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어야 된다 은총을 통해서만 세상과 인간을 돌보시는 진정한 돌봄의 모델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믿음과 이해가 수반된다

남을 돌본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너에게로 향하는 전적인 타자를 위한 행위다 이러한 돌봄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된다 하나님의 창조행위 자체가 돌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한 피조물을 돌보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인 사랑으로 피조물을 돌보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봄이 가장 구체적으로 현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돌봄의 행위이다 목회자가 긍정적인 가치관, 영혼에 대한 부담감, 성숙한 신앙, 개방된 신학, 개방된 교회관을 가지고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초월적인 가치를 체험하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은 존재의 의미를 강하게 발견하게 된다

6 목회적 돌봄의 과정

- 1) 신뢰관계를 형성하라
- 2) 소망을 주라
- 3) 문제를 이해하라
- 4) 자료를 수집하라
- 5) 자료를 해석하라
- 6) 권면하라
- 7) 변화하게 하라

8) 열매맺게 하라

7 초기 사정단계의 두 가지 영적 지원

1) 기도의 변화에 따른 단계적 대처

① 원망의 기도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 자주 호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나타난다 '하필이면 왜 내가?' 하는 물음은 하나님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고 고뇌에 찬 좌절감을 외치는 분노의 반응이다 이 시점에서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편안하게 이런 분노를 표출하면서 일종의 해방감을 맛보며 새로운 활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분노를 비교적 수월하게 표출하게 되면 보통 뒤이어 하나님과 투쟁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노한 외침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듯 보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믿으며 또 분노한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분노에 익숙해져야 한다

② 침묵의 기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좌절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망과 절연을 느끼며 이제 모습이 없이 부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종종 이전에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은 사라졌다고 느끼고 외로움을 맞본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병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거나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를 거절하는 듯 보이는 사실에 냉정해지며 이때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바깥으로 돌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하려는 경향을 갖기도 하지만 대체로 말 수가 적어지고 내면화의 현상이 점점 깊어진다

③ 회상의 기도 삶의 회고, 의미있는 관계, 결정 및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재현을 내포한다 이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비탄과 성취하지 못한 꿈, 성공과 실패를 성찰하고 일생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재평가한다는 뜻이다 기억은 마음과 정신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감정에 불을 붙이고 해명되지 않은 물음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재점검하는 것은 그 가치를 확인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그 모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에서 이런 회상의 기도는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이 가치가 있었음을 확인하려는 깊은 열망의 표현이다

④ 감사의 기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사람과 장소, 직업 및 잃어버린 꿈들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이 이런 상실과 박탈의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궁금해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에게 분노와 실망, 곤혹을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하고 하나님을 적이 아니라 힘의 원천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신앙의 맥락에서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는 일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만들고 행복한 시절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탱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 사건들 안에서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 대하게 되면 깊은 감사의 표현인 고요한 경외심이 일어난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체험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나 인생여정을 통제할 때이나 자신의 한계를 수용할 때 드러나는 은총이다

⑤ 확신의 기도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확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희망을 발견한다 이 희망은 병의 치유에 대한 기대가 아니며 고통의 의미를 이해한다거나 죽음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희망의 본질은 삶의 가치에 대한 신뢰의 태도이자 자신들의 병과 임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삶의 각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신뢰가 생긴다

2) 시편 탄식시(Psalms of Lament)의 구조 적용

① 불평 하나님께 현실과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강력하게 표현한다

② 탄식 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함께 직면한 문제들이나 고통에 대하여 울부짖는다

③ 신뢰 고통과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④ 청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간구한다

⑤ 확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으로 자신의 삶이 지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⑥ 찬양, 서원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에 감격하며 찬양을 드린다 죽음을 초극하며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불타게 된다

탄식사에서 시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부정만 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투쟁을 이룬다 그들은 우울의 단계에서도 자포자기 하지 않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에 찬 기도를 드린다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을 기대하며, 강한 확신으로 기도를 마친다

8 마치는 말

초기 사정 단계의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은 호스피스 대상자 그리고 가족에게 압박한 죽음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영적 고통을 격감시키며, 하나님과 균형 잡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영적 성숙의 기회를 삼게 하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 관심의 상태로 전환하게 하고, 자아정체감(Self Identity)이 회복되어 남은 삶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목회자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가지는 영적인 고통이란 하나님과 관련하여 인간 존재에서 나오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고통이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며 평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본성을 지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죽음에 직면하여 멀리 떨어져 간다고 여길 때 극심한 영적 고통과 죽음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말기 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는 낯설고 생소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직면한 죽음의 현실성(Reality)으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 극심한 부담감과 고통을 가지게 되므로 목회자는 영적 고통과 요구에 관련된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며, 영적 지지 자원 및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회복, 종교적 신념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에서 하나님, 자신, 이웃,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능동적으로 유지, 향상시키며 영적 안녕 상태에서 희망을 가지고 평온한 죽음, 새로운 세계와의 창조적 만남을 이루도록 이끌어야 한다